

# 바깥쪽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 ... 투수 웃고 타자 울고



나지완

타고투저 완화 ... '공감' 필요  
 한승혁 "예전에 볼 코스인데"  
 나지완 "볼이라 생각했는데..."  
 이흥구 "투수 리드 여유 있어"

달라진 스트라이크존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2017시즌 프로야구에서 달라지는 점 중 하나는 스트라이크존이다. 좁은 스트라이크존을 정상화해 극심한 타고투저 현상을 완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KBO의 방침이다. 이에 맞춰 지난 시범경기에서는 확대된 스트라이크존이 적용됐다.  
 넓어진 존에 맞춰 시범경기를 치른 KIA 선수들은 "확실히 넓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투수들은 반색하고 있다.  
 투수 한승혁은 "예전에는 볼이었던 코스인데 바깥쪽이 스트라이크가 됐다. 확실히 커진 것은 같다. 투수들 입장에서는 바깥쪽을 보고 던지면 되니까 좋다. 하지만 바깥쪽을 보고 던진다고 해서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던질 수 있는 투수는 많지 않다(웃음). 던지다 보면 느끼겠지만 많이 던지는 코스가 정해져 있고 아직은 던졌던 스트라이크 존에 적응된 상태다. 또 확실하게 (달라진 존으로) 잡아줄 거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던지게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타자들에게는 불리한 변화지만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변화라는 데도 큰 이견은 없다.  
 이번 시범경기에서 가장 많은 8개의 볼넷을 끌라낸, 선구안 좋은 나지완은 "볼이라고 생각했던 게 스트라이크가 되는 등 존이 넓어졌다. 선구안이 좋다고는 하지만 내 입장에서도 신경은 쓰인다"면서도 "(존 확대) 필요성은 있다. 지난해 3월 타자가 40명이다. 타고투저가 완화될 필요는 있다. 이번 변화로 타고투저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수들은 물론 심판들도 아직은 새로운 스트라이크존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한 상태다.  
 나지완은 "아직 스트라이크존이 확실하게 고정된 것 같지는 않다. 공 하나 차이로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야구라서 불리한 볼카운트가 되면 타자들이 많이 쫓기게 될 것 같다. 당분간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포수들은 넓어진 스트라이크존을 두 마음으로 지켜봤다. 투수들을 이끌고 상대 타자를 잡아내야 하는 포수 입장에서는 넓어진 스트라이크존이 반가웠지만, 타석에 서는 타자가 되면 넓어진 존이 아속하기도 했다.  
 이흥구는 "확실히 바깥쪽 승부를 하는 게 더 편해졌다. 포수 입장에서 존이 넓어지면 리드를 하는데 더 여유가 있다. 타자 입장에서 보면 반대이다"고 웃었다.  
 한국프로야구의 질적 발전을 위해 시도되는 새로운 변화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감'도 필요하다.  
 27일 진행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kt의 김진욱 감독은 "스트라이크 존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는데 스트라이크 존 때문에 WBC에서 성적이 안 좋고 이런 것은 오해다. 현장의 감독, 선수, 심판, 팬들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존이 원래 자리를 찾는 데 공감을 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시즌 초반 스트라이크존 확대에 따른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발전된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해 많은 이들의 노력과 공감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흥구

## KIA 팬북 2만부 발간 올 시즌 전망·선수 인터뷰 실려

KIA 타이거즈가 2017 시즌 팬북 2만부를 발간했다. 올 시즌 전망·열정·사랑을 컨셉으로 해 경기에 나서기 전 절연한 모습을 한 KIA 타이거즈 선수 이미지로 표지를 장식했다. 특히 올 시즌부터 선수단이 착용하는 새 유니폼의 워드마크를 강조해 선수단의 자긍심을 표현했다.  
 팬북은 새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고 기존 다이어리 사이즈 보다 확대한 A4 사이즈의 화보로 구성했다. 화보와 함께 다양한 인터뷰가 실려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지난 시즌 결산과 올 시즌 전망 또 김기태 감독이 추구하는 '동행 야구'가 소개됐고, 주장 김주찬의 와이드 인터뷰도 담겼다.  
 FA선수료 새 시즌을 보내게 된 양현종과 '신인 호랑이' 최형우의 소감과 각오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정적 응원을 펼친 배우 이선균 씨의 'KIA 사랑' 스토리도 실렸다. 또한 프리미엄 구장으로 진화하고 있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와 미래 자존 육성 및 재할을 담당하는 함평 챔피언스 필드와 재활센터 곳곳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올해 발간된 팬북은 1만원에 비전코리아(www.vjkorea.com)에서 판매된다. 챔피언스 필드 내 타이거즈숍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팬북 구입 문의는 비전코리아(1899-1949)로 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올 시즌 프로야구 정확하고 빨라진다

비디오 판독센터 설립  
 투수 교체·연습투구 단축  
 퓨처스리그 야간경기 도입

2017시즌 프로야구가 정확하고 빨라진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더욱 공정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위해 시즌 개막에 앞서 몇 가지 규정을 손질하고 시범경기부터 시행해 왔다.  
 먼저 심판 합의 판정제도가 '비디오 판독'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더욱 공정한 경기 운영을 위해 외부에 KBO 비디오 판독센터가 설립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각 구장 심판실에서 실시하던 심판 합의 판정은 올해부터 비디오 판독센터에서

이뤄진다.  
 구단으로부터 비디오 판독 요청을 받을 경우 비디오 판독센터 영상으로 이를 판정하게 된다. 해당 판정의 심판과 심판 팀장은 현장 운영요원으로부터 인터컴 장비를 전달 받아 작용한 후, 판독센터의 결과를 수신 받아 최종 결과를 내리게 된다.  
 KBO는 각 구장에 비디오 판독 전용 카메라를 3대씩 설치했다. 판독센터에서는 전용 화면과 기존 중계방송 리플레이 화면을 동시에 활용해 정확하고 빠른 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디오 판독에는 판독관 3명과 전문 엔지니어 3명이 참여한다.  
 또 KBO 비디오 판독센터는 클린 베이스볼 강화를 위해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경기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도 담당한다.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투수 교체 시간은 2분 30초에서 2분 20초, 연습투구 시간은 2분 10초에서 2분으로 10초씩 단축했다.  
 또한 타자가 볼넷이나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할 경우 1루에서 보호대를 벗어 코치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타석에서 보호대를 벗고 출루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퓨처스리그 선수들의 건강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혹서기 야간 경기를 도입한다.  
 7월 24일부터 3주간 평일 경기는 오후 6시30분, 주말 경기는 6시에 시작한다. 이외에 7·8월 경기 개시시간은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괴물' 류현진 내달 7~8일 빅리그 복귀전

### 시범경기 화이트삭스전 호투 선발 로테이션 확정

'괴물투수'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끝이 안 보이던 재활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3년 만에 메이저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됐다.  
 류현진은 28일 2017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 선발 등판해 5이닝 5피안타(2피홈런) 4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류현진은 체력 회복 속도와 이닝 소화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경기가 끝난 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이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해 시즌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류현진은 2015년 부상자 명단에서 시즌을 시작한 뒤 그해 5월 어깨 수술을 받으면서 재활에 들어갔다. 지난 시즌 역시 재활로 시즌을 시작한 류현진은 7월 메이저

리그 복귀전을 치렀지만, 한 경기만 소화하고 팔꿈치 부상으로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25인 로스터에서 시즌을 맞이하는 건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류현진의 빅리그 복귀전도 관심을 모은다.  
 스프링캠프 4경기에서 14이닝 4자책점으로 평균자책점 2.57을 기록해 경쟁을 뚫아낸 류현진이지만, 4월 성적에 따라 운명이 바뀔 수 있다.  
 로버츠 감독은 MLB닷컴과 인터뷰에서 "브랜던 매카시와 알렉스 우드가 남은 5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여 승자가 선발인데, 패자는 볼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서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을 4선

발 혹은 5선발로 염두에 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4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홈 4연전으로 시즌을 시작하는 다저스는 3선발까지 확정했다. 4일 개막전은 좌완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가, 5일과 6일은 좌완 리치 힐과 우완 마에다 겐타가 각각 등판할 전망이다. 만약 류현진이 4선발이라면 7일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전이 복귀전이 되고, 5선발로 빠지면 8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방문 경기에 나서게 된다.  
 류현진은 7일 샌디에이고전에 등판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다. 우선 익숙한 다저 스타디움에서 홈팬의 응원을 받으며 던질 수 있고, 지난해 메이저리그 복귀전에서 4.2이닝 6실점으로 '쓴 잔'을 건넨 샌디에이고에 실용할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류현진의 샌디에이고전 통산 성적은 4승 1패 평균자책점 2.19다.  
 /연합뉴스

## LPGA '호수의 여왕'은 누구?

### ANA 31일 개막 ... 박인비·전인지·이미림 우승 노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이 31일(한국시간) 개막해 나흘 동안 열전을 벌인다.  
 ANA 인스퍼레이션은 46번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조세미타의 미션힐스 골프장 다이나 쇼어 코스(파72)에서 열린다. 같은 코스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하는 골프 대회는 마스터스 말고는 없다.  
 LPGA투어에서 전통과 권위를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대회다. 우승자가 시상식을 마치면 18번 홀 그린 옆 호수에 뛰어 드는 챔피언 세리머니도 이 대회만의 독특한 전통이다. '챔피언의 호수' 또는 '속녀

의 호수'로 불리는 이곳에 몸을 던지는 세리머니는 LPGA투어 선수라면 다 소원이 다.  
 올해 '호수의 여왕'은 한국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열린 6차례 LPGA투어 대회에서 4개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했다. 게다가 대회 때마다 한국 선수끼리 우승 각축을 벌였다. 이런 조강세 때문에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 후보도 자연스럽게 한국 선수가 거론된다.  
 박인비는 메이저대회에 유난히 강하다. 통산 18승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승을 메



박인비

이저대회에서 따냈다. 최연소 카리어 그랜드슬램도 달성했다. 지난 2013년 이 대회 정상에 올라 '호수 다이빙' 경험도 있다.



전인지

올해 상위권 입성이 잦은 전인지도 우승을 노리고 있다. 전인지 역시 메이저대회에 강하다. LPGA투어 2승을 모두 메이저



이미림

에서 수확했다. 더구나 지난해 이 대회에서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에 1타 뒤진 준우승을 차지할만큼 코스와 공합이 맞는

다.  
 장하나와 양희영, 이미림 등 올해 일찌감치 우승을 신고한 '챔피언스 클럽' 멤버 3명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2년 5개월 만에 우승 갈증을 씻어낸 이미림은 내진김에 2연승과 메이저 제패로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하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이 대회에 초청 선수로 참가해 공동 6위라는 눈부신 성적표를 받아온 '슈퍼루키' 박성현도 주목할 대상이다.  
 타이틀 방에 나선 리디아 고는 최근 하락세에 빠진 경기력이 고민이다. 작년에는 기아 클래식 우승에 이어 이 대회 정상에 올랐던 리디아 고는 이번 기아 클래식에서 컷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일본 여자프로골프(JLPGA)투어를 평정한 이보미와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상을 받은 고진영도 초청 선수로 출전한다.  
 /연합뉴스